

영광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치매 어르신 건강 꾸러미 전달

오는 11일까지 사례관리대상자 445명 대상

1:1 가정방문 통해 어르신 건강상태 확인도

영광군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대상자 445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강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치매 센터와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고, 외출 자제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1:1 가정방문을 통해 치

매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작은 행복감을 주고자 파스, 미끄럼방지 매트 등 건강꾸러미 8종을 지급하고, 치매예방수칙과 투약방법을 지도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외출자제 교육, 우울감 해소를 위한 심리방역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묘량면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코로나

19로 경로당이 폐쇄되어 마을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자녀들도 모두 객지에 살고 있어 힘든 시기인데 “이곳까지 직접 찾아와 맡봐도 되고, 건강꾸러미도 선물 받게 되어 너무도 좋다.”며 연신 고마움을 전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치매환자들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증진시켜 고립감 해소와 외로움 예방은 물론 가족들의 부양 부담 감소 및 휴식을제공하여, 치매로부터 안전한 영광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치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 삼호읍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정비·안부살피기 강화

55개 마을경로당 일제 방역
경로식당 운영 중단에 대체식
곰탕·추어탕 등 10종 영양식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장기간 운영할 수 없어 어르신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는 시기이다.

영암군 삼호읍(오자영읍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휴식기를 심분활용하여 환경정비도 하고 어르신 안부살피기에 치중하여 노인복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55개 마을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폐쇄전에 일제 방역을 하였고, 주변 잡초제거 등 주변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기회로 삼았다.

이와 더불어 남·여경로당 외에도 주간보호센터와 다문화센터를 운영해 오던 삼호읍종합복지회관도 주변 조경수전정작업을 통해 보기 좋게 다듬고 풍수해로 망가진 노후된 난간교체



삼호읍 복지회관 전경작업

공사도 추석 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환경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복지관 내 남·여경로당을 이용해왔던 어르신들이 그동안 지원받던 경로식당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식으로 대신하고 있다. 대체식으로는 곰탕, 추어탕 등 10종의 영양식을 안부도 살피며 한분한분 지급함으로써 소통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군에서 추진 중인 소외가정 결연활동도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삼호읍 소속 공무원 29명과 결연한 소외가정에 대해서 매주 복지제도 안내



대체식 지원

와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소통이 단절된 시기에 자칫 우울해 질 수 있는 소외가정 안부를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자영 삼호읍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럴 때일수록 보다 친절한 행정서비스 실현과 보다 안전한 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복지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소외가정 및 어르신들과 소통의 기회를 넓히면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고흥군, 군민이 따뜻한 희망복지 실현

신속조사 제도완화 등 적극적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흥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욕구별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군민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폭넓은 수급권자 권리구제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권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만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최초 적용 △수급

자 기본재산 공제액 대폭 확대 △부양비 부과율 인하(30%→10%) 등 다양한 제도 완화를 시행하여 2020년 상반기에만 849가구를 수급자로 결정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 법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보호하고자 고흥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6회)하여, 32가구 46명의 복지대상자를 추가적으로 보호 결정하여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강진지역자활센터’ 자활복지개발원 우수기관 선정

강진지역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구 중앙자활센터)에서 처음 실시한 중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년 대비 참여자 증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증가, 수익금 및 매출액 증가를 지표로 해 평가한 결과이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운영비 1,9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성과는 강진군과 강진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이뤄낸 쾌거다. 군과 자활센터의 협력으로 작년 대비 내일키움통장(목돈마련) 가입자가 18명 증가했으며, 5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으로 특화사업인 다산조청(우수자활생산물 경진대회 4년 연속 수상)과 공중화장실 청소사업 등이 수익금·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이번 중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됐다.

강진=김영일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